

## 한국 웹소설 독자의 특성 연구

김경애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b Novel Readers

Kyung-Ae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이 글에서는 웹소설 독자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내적 규칙과 이념을 이루어왔다고 보고, 로맨스 웹소설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로맨스 웹소설이라는 매체 혹은 장르의 특성과 이념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웹소설 독자의 이념과 행동양식을 밝히기 위해 잠재 디리클레 할당기법과 문화비평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법 중 이용과 충족이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피서술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웹소설 독자가 사랑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애의 최종 목표가 결혼이라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으로서의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지녔음을 밝혔다. 로맨스 웹소설 독자는 연애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연애의 목적이 결혼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즐기는 문화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의해 형성된 팬덤이 웹소설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역으로 추적하면 로맨스 웹소설은 장르소설적이며, 컬트적 속성이 강한 대상으로 분석된다. 웹소설은 웹툰에 이어 한국 콘텐츠의 보고로 간주되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는 장르와 플롯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웹소설이 장르소설로서의 형태를 고수하는 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독자의 변화가 웹소설의 변화를 선도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how readers and cultures of web novels have influenced each other and achieved internal rules and ideologies. Research has also been conduct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ideologies of romance web novels, focusing on the cultural phenomenon of these novels. To reveal the ideology and behavior of web novel readers,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nd the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among the soci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criticism are utilized. First,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ee, it is seen that web novel readers have fantasies about love and reveals that the ultimate goal of love is to have a nuclear family ideology through a romantic marriage.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fandom formed by readers is blocking the change in web novels by centering on comment analysis. If tracked backward through the results derived, romance web novels are genre novels and are analyzed as objects with strong cult properties. Web novels are considered a repository of Korean content following webtoons. A new story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mixing genres and plots. As long as web novels stick to their form as genre novels, changes are not expected to be easy. Changes in readers will lead to changes in web novels.

**Keywords** : Ideology of Romantic Love, Cult Property, Response Statement, Fandom by Readers, Reading Nomad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52300)

\*Corresponding Author : Kyung-Ae Kim(Mokwon Univ.)

email: minerbakorea@mokwon.ac.kr

Received May 28, 2021

Revised July 1, 2021

Accepted July 2, 2021

Published July 31, 2021

## 1. 서론

### 1.1 연구 목표 및 연구 대상

웹소설은 웹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까닭에 출판소설에 비해 독자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매체(媒體)가 소통의 수단 도구라면, 매재(媒材)는 소통되는 담화의 재료, 질료를 뜻하는데[1], 웹이라는 소통 수단으로 실어나르는 재료가 언어(글)와 그림(일러스트와 캐릭터)이라는 점에서 웹소설은 소위 복합매체(multimedia)라고 부르는 콘텐츠의 하나로 정의된다.

웹소설은 웹에서 태어나 웹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중적 속성을 많이 지니게 되었다. 요일별로 업로드되는 연재시스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읽는 스낵 컬처적 속성, 조회수와 별점 등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플랫폼의 진열방식 등은 웹소설의 대중성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기에 웹소설은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는 생존에 관련된 조건을 지니게 되었다[2].

가독성은 웹소설 세계를 구성하는 동시에 해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많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독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그래야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생존조건에 적응하여 웹소설은 내적 규칙과 이념을 조정하면서 대중적 속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했고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웹소설의 독자이다. 웹소설을 문화적 놀이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 문화 참여자는 놀이의 관습과 규칙에 익숙하고, 그것이 창출하는 이념에 동조하는 집단일 것임이 분명하다. 가령 로맨스 웹소설이라면, 독자는 이 콘텐츠의 관습에 익숙하고 이러한 놀이를 선호하는 문화적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문화가 의미 생산과 교환의 순환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웹소설 문화에서 독자가 그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에서 사람, 대상,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문화 참여자들이기 때문이다.

곧, 웹소설 독자는 웹소설 문화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적 규칙과 이념을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맥락에서 웹소설 독자의 이념과 행동 양식을 밝히는 일은 콘텐츠의 관습과 이념, 나아가 그 문화의 속성과 의미를 밝히는 일이 될 수 있다. 기능주의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콘텐츠가 지닌 명시적 기능(manifest function)과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을 살피는 일이 된다.

이 글에서는 로맨스 웹소설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로맨

스 웹소설이라는 매체 혹은 장르의 특성과 이념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콘텐츠와 독자들이 이루는 의미와 이념의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그 문화현상의 이념과 의미를 밝히려는 것인데, 독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에 접근하려고 한다.

논의의 주된 대상은 텍스트 실수용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댓글이 될 것이다. 대상 작품은 6개월 이상 연재 후 완결된 작품들로서, 『허니허니 웨딩』(2015), 『미치도록 너만을』(2016), 『애타는 로맨스』(2017)가 될 것이다. 이 작품들은 네이버 웹소설에 연재된 것들인데, 연재기간 동안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작품들로서 화제성이 높아 댓글로 소통하는 수용자들의 문화적 성향과 의미를 밝히는 데 적절한 대상이다. 주로 네이버 웹소설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연재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어 독자들이 자유롭게 읽고 댓글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는 플랫폼이므로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1.2 연구 방법

#### 1.2.1 잠재 디리클레 할당기법

웹에 댓글을 올리는 실수용자들을 소위 ‘떼 지성(swarm intelligence)’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문화연구에 필연적 요소가 되었다. 이들은 ‘소통’에 기초하고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통제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성장하는 개방적 대중이다. 네그리와 하트(Antonio Negri & Michael Hardt)는 이들을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상이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주체라는 점에서 대중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보아 ‘다중(multitude)’으로 명명한다[3].

비평 영역에서 이는 독자반응비평으로 이어진다. 독자반응비평은 가장 뒤늦게 발달한 비평 영역으로서 의미확정 주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여기고 있는 점, 비평내용이 독자의 경험에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이 텍스트 해석에 혼란과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달라지게 되었다. 빅데이터 연구는 소규모 표본연구 중심이었던 문화연구를 계량적 연구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댓글은 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텍스트 실수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독서후기 형식의 댓글 연구는 텍스트에 집중하여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의 특성을 밝히는 데 적절한 연구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웹소설 관련 댓글만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대중문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한다.

댓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이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그 일환인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기법이 주로 쓰여왔다. 감성분석은 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의견, 성향 등의 주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분석하는 기술로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이라고도 하며 최근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제가 무엇인지 추출하기보다, '블루'에 대해 분석한다면 '부정'이라는 의견을 추출하는 식으로 그 주제에 대해 수용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긍정/중립/부정' 등으로 매우 단순화하여 표현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감성분석법은 수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밝히는 데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수용자들의 감정과 미의식이 표출되는 언술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보아 이를 반응진술(response statement)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를 살피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기법(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하려고 한다.

댓글 분석에서 빈도수 외에 주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주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가일 것이다. 수용자들이 어떤 주제의 댓글을 많이 달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토픽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데이터를 군집으로 처리하여 자연스러운 항목으로 그룹을 찾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여러 단어가 섞여 토픽을 이루고, 여러 토픽이 섞여 문서를 이룬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 언어의 전형적인 사용 방식을 반영하여 문서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각 문서의 내용을 서로 '겹치게(overlap)' 인식한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기법(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법은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링 기법의 하나로서,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 수 분포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서에서 단어 수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을지 예측하게 해준다.[4]

LDA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단어의 교환성(exchangeability)이다. 이는 '단어 주머니(bag of words)'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교환성은 단어들의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단어들의 유무만이 중요하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Apple is red'와

'Red is apple' 간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어의 순서를 무시할 경우 문헌은 단순히 그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가정을 기반으로 단어와 문서들의 교환성을 포함하는 혼합 모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LDA이다. 하지만 단순히 단어 하나를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들의 묶음을 한 단위로 생각하는 방식(n-gram)으로 LDA의 교환성 가정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 1.2.2 문화비평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를 둘러싼 논쟁의 대부분은 사회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네 가지 학문 분야의 핵심 개념은 각 분야에 속한 사회과학자들이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Table 1. Key Concepts & Process

\	sociology	psychology	politics	anthropology
Key Concepts	group, institution	mind, consciousness	power, government	culture
Process	socialization	identification	indoctrination	enculturation

문화비평이 걸쳐 있는 영역은 위에 제시한 영역 중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분야에 걸쳐 있다. 가령, 로맨스 웹소설 독자는 95%가 여성이고, 30-40대가 64%를 차지하는 문화적 집단이다[5]. 이 집단의 특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 문화적 집단이 지닌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한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이란 패션, 자동차, 오락, 여가, 문화와 같은 것들에 대해 한 개인이 선택한 취향의 총합을 의미한다.[6].

스타일이라는 단어에는 '양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양식은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계급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개인의 '이미지'에 반영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에 대한 비평적 연구는 현대 자본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 우리의 정신적 지형을 밝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1.2.3 이용과 충족이론

문화사회학 이론 중 이용과 충족이론은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주제다. 이 이론에서 콘텐츠가 보여주는

는 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의 요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의 역할을 살핀 과학적 연구는 기존에 많이 있어 왔다. 특히 버거(Arthur Asa Berger)는 인간이 지닌 욕구와 욕망, 그리고 대중예술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를 24가지 항목으로 요약한다.

1. 즐기기 위함
2.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칭찬받거나 망신당하는 것을 보고자 함
3. 아름다움을 경험함
4. 타인과 경험을 공유함
5.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소식을 전해 들음
6. 신(神), 그리고 신성한 계획과 동일시함
7. 기분전환과 오락을 발견함
8. 감정이입을 경험함
9. 죄책감 없이 극단적인 감정을 경험함
10.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을 발견함
11. 정체성을 획득함
12.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음
13.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함
14.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강화함
15. 마법, 기묘함, 기적에 대한 신념을 강화함
16.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봄
17. 세상에 부여된 질서를 이해함
18. 간접적으로 역사에 참여함
19. 불쾌한 감정을 정화시켜 줌
20. 죄책감 없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확보함
21. 처벌받지 않고 금기시되는 주제를 탐구함
22. 추한 것을 경험함
23. 도덕적, 영적, 문화적 가치를 확증함
24. 활동하고 있는 악당을 봄

그는 문화비평이 영화, 시트콤, 연속극, 만화 같은 텍스트에서 어떤 이용과 충족의 요소가 중요한지 살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텍스트 속 사건들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이용과 충족의 요소와 연관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비평가들이 동일한 사건일 지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이한 충족감을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에 따른 유형화 연구는 콘텐츠 자체의 이념과 속성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제시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여 독자의 텍스트 수용에 관계된 미의식과 그 기반을 밝히는 문화사회학적 혹은 문화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대중서사 생산과 수용에 관계된 독자들의 미의식 연구는 그 소비량과 소비패턴을 예측하게 하여 문화산업 전략을 세우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현대의 문화적 지형을 밝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 웹소설의 피서술자

이야기 속에서 서술자가 속하는 서술의 수준, 이야기 속 참여 범위 등은 서술자의 위상을 규정하는 요소들이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의 존재가 서사양식의 핵심적 요소로 많이 주목된 데 비해, 수화자로서 피서술자의 존재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피서술자(narratee)'는 서술자의 말을 듣는다고 상정된 존재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프랭스(Gerald Prince)가 만든 신조어로서, 서술자가 의도한 청중을 가리키는 말이다[7].

피서술자는 실제독자건 내포독자건 독자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또한 모든 서술자가 피서술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설들은 피서술자를 상정하고, 이는 근대소설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여겨진다. 가령, 「치숙」의 서술자는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하면서 편한 어조로 말을 건네는데, 이때 피서술자는 서술자가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일인칭 서술자인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대상으로 예측된다.

이때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배제되는 이유는 '말이지요'라는 일종의 예사 높임 경어체에서 비롯된다. 일정 대상의 배제를 통해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제시한 경어체 말고도 서술자의 어조나 담화 상황, 담화 내용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피서술자에 대한 연구가 도외시되었던 것은 텍스트가 확정된 의미 주체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작품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가 전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언어 생산 활동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저자'는 텍스트의 기원도 종결도 아니며, 텍스트는 '소화'되는 게 아니라 협동의 장에서 독자에 의해 열려지고 숨을 쉰다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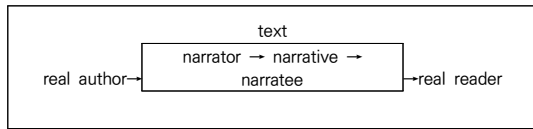


Fig. 1. Narrative situation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설에서 피서술자가 어떤 대상으로 여겨지느냐 하는 점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웹소설처럼 실제독자를 염두에 두고 피서술자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면 이점이 잘 드러난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살며시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낸 후, 천천히 왈츠를 시작했다.

서로를 향하는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얽혀들었다.

바람에 묻어온 상큼한 사이프러스 향과 함께 달콤한 사랑의 공기가 두 사람을 포근히 감싸 안았다.

“사랑해.”

재현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치도록 너만을.”

그의 달콤한 고백을 음미하며 세희는 살포시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작은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사랑해요.

미치도록 당신만을…….

그녀가,

그가,

두 사람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왈츠는 어느새 클라이맥스를 향하고 있었다. (『미치도록 너만을』 하권 519쪽)

『미치도록 너만을』의 종결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소설은 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모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인공 세희가 재현과 사랑에 빠지면서 부와 신분까지도 더불어 되찾게 된다는 신데렐라의 서사 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만나고 사랑해왔음에도 인용에서 제시되듯, 현재 시점에서도 상대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다고 서술된다.

재현의 고백이 대화체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세희의 대답이 내면독백으로 처리되고 있음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현대 웹소설의 여주인공들이 개성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획득해 가고 있지만, 사랑을 먼저 발화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주로 남자주인공들이다. 이들이 바라는 남성상은 이른바 ‘직진남’으로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담백하고 진솔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남자주인공은 현실에서처럼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존재가 아닌 이상적 인물로 그려진다.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서술자는 소설 종결부에서 세희와 재현의 왈츠 장면을 로맨틱하게 그리면서 그들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준다. 한편, 이러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상정된 존재, 곧 피서술자는 이러한 남성상을 선호하고,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시한 소설 종결부는 진실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서, 아울러 연애의 최종 목표가 결혼이라는 이념을 강화한다. 이는 버트란트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이 말한 낭만적 사랑의 이념으로서, 핵가족을 성립시킨 이데올로기이다. 필자와 구진희의 이전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연애관이 연애보다 결혼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밝힌 바 있는데[8], 이러한 결과를 증명하는 보기로 생각된다.

곧 웹소설의 피서술자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연애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핵가족 이데올로기, 곧 낭만적 사랑의 이념의 소유자들로 분석된다. 여기서 웹소설 독자의 64%가 30~40대 여성들이라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용과 충족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즐기기 위한, 기분전환과 오락을 발견함, 감정이입을 경험함, 낭만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강화함’이라는 부분에 대해 충족감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욕구와 충족감을 주는 것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강화함’이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매체들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Fig.2는 『허니허니 웨딩』의 워드클라우드를 예시한 것이다.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작가님’이 주인공 이름인 해수와 혁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개의 로맨스 웹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등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작가님’에 대한 언급 빈도는 3~4위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9]. 제시한 『허니허니 웨딩』이 1,395회, 『반드시 해피엔딩』이 2,275회, 『미치도록 너만을』이 1,069회 언급되었는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남녀주인공의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빈도수 3위에 올라있음을 살필 수 있다.



Fig. 2. Word-cloud for 『Heney Heney Wedding』

이 점은 TV드라마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경우 ‘작가님’은 424회로 64위에 불과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도 상황은 유사해서 ‘작가님’은 635회 언급되어 57위를 기록했다.

웹소설에서 ‘작가님’이 이처럼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유통방식의 영향이 크다. 웹에서 작가와 독자는 즉각적으로 소통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웹소설은 주 2회 업로드되는 요일별 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소설 끝에 별점과 ‘좋아요’, ‘작가의 말’이 함께 붙어있다. 따라서 그 아래 달게 되어 있는 댓글은 자연스럽게 작가와 소통하는 형식을 지니게 된다. 이런 이유로 회차별 서비스 페이지에 달리는 댓글은 독서후기 외에도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작품에 대한 요구를 함께 담게 되었다[9].

댓글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독자는 작가에게 스토리와 서술에 대한 요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더구나 독자의 요구가 플랫폼의 진열방식에 영향을 주는 별점과 조회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작가는 독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작품은 독자의 요구와 환상을 성취해주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게 된다.

### 3. 실제 독자의 결속력과 이념적 특성

반응진술은 대체로 갈등이 첨예한, 구체적으로 긴장(tension)이 극대화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독자의 반응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커다란 사건(event)이 가능할 때보다 크고 작은 에피소드(episode)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때이다. 사소하게는 주인공이

곤란에 처한 순간, 주인공이 폄박받는 순간에 수용자들은 저도 모르게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며 반응진술들을 쏟아낸다[9].

댓글 분석에서 빈도수 외에 주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주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가일 것이다. 수용자들이 어떤 주제의 댓글을 많이 달았는지 살피기 위해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으로 작품을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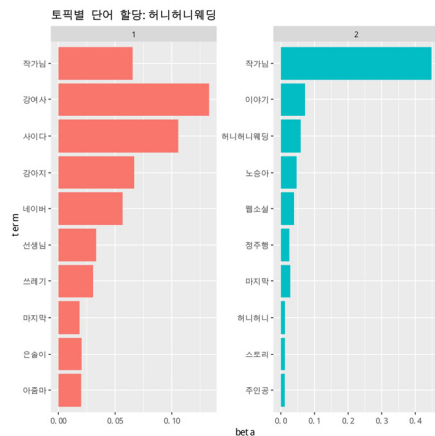


Fig. 3. LDA for『Heney Heney Wedding』

『하니하니 웨딩』은 두 가지 주제가 비교적 뚜렷한 양상을 나타냈다. 먼저 주제1은 ‘작가님-강여사-사이다-강아지-네이버-선생님-쓰레기-마지막-은솔이-아줌마’의 단어 조합으로 미루어볼 때, ‘작품의 스토리 및 서술 지향 주제’로 볼 수 있다. 이 주제는 소설 내적 국면에서 작가에게 작품의 스토리와 서술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언술로 이해된다.

강여사와 쓰레기, 사이다의 조합은 소위 쓰레기 같은 악인에 대한 처벌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직접 제시로 분석된다. ‘네이버’의 등장은 주인공의 애정선에 방해되는 검열 관리자(속칭 ‘네이버’)를 독자들이 소위 ‘치워놓겠다’는 맥락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선생님-은솔이-마지막’의 단어 조합은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행복한 엔딩을 맺기를 바라는 소망을 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1이 주로 소설 내적인 부분에 관련된 언술이라면, 주제2는 주로 소설 외적인 부분에 관련된 언술로 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주제2는 ‘작가님-이야기-하니하니 웨딩-노승아-웹소설-정주행-마지막-하니하니-스토리-주인공’의 단어 조합을 보여주는데, ‘하니하니 웨딩’이라는

작품 제목과 '노승아'라는 작가의 필명이 그대로 들어 있다. 이 주제는 '작가 및 작품 지향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앞장에서도 살폈지만, 웹소설에서 '작가님'의 언급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웹소설 독자는 TV드라마와 달리 작가에 대한 소위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이다. '작품을 안 읽은 독자는 있어도 한 번 읽은 독자는 없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웹소설 독자들은 작가의 전작들을 줄줄 꿰고 있는 독자들이 많고, 작가를 '쫓아다니며' 작품을 읽는 이른바 '유목 읽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시한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작가의 이전 작품인 '법사(법대로 사랑하라)'에 대한 빈도수가 상당히 높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웹소설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번 읽어본 작가의 작품은 경향이구나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기에, 독자는 작품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작품이 수천 편에 이르는 웹 환경에서 작품을 선별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작품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소설 독자들이 작품을 읽는 목적이 소위 '힐링'에 있음을 알게 된다. 기존의 이념을 확인하고 위안받고 받고 싶은 것이지,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새롭게 알거나 추구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웹소설에는 작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팬덤(fandom)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이 기존의 것을 고집하고 고수하며, 특정 대상에 열광하고 있다는 점은 웹소설 문화 현상의 속성이 컬트적임을 확인해 준다. 웹소설이 TV드라마보다 훨씬 장르소설적이고 컬트적이 된 이유는 유목민처럼 작가를 따르는 독자 집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웹소설이 작가 중심의 유목 현상을 나타내는데 비해, TV드라마는 이러한 현상이 드물다. 이는 문자와 영상이라는 매체 차이라기보다 웹소설이 처한 환경의 탓, 곧 매체의 탓으로 볼 수 있다. 웹소설은 수많은 작품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면 과제 하에 생산된다. 반면 드라마는 비교적 소수의 작품과 경쟁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웹소설에서 장르 소설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정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드라마와 달리, 언제든 원하는 작품을 골라볼 수 있는 독서환경이 만들어 낸 변종적 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웹소설은 기존의 플랫폼이나 분위기를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

여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 4. 결론

이 글에서는 웹소설 독자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내적 규칙과 이념을 이루어왔다고 보고, 로맨스 웹소설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로맨스 웹소설이라는 매체 혹은 장르의 특성과 이념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웹소설 독자의 이념과 행동양식을 밝히기 위해 잠재 디리클레 할당기법과 문화비평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법 중 이용과 충족이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피서술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웹소설 독자가 사랑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애의 최종 목표가 결혼이라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으로서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지녔음을 밝혔다. 로맨스 웹소설 독자는 연애지상주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연애의 목적이 결혼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즐기는 문화적 집단으로 여겨진다.

웹소설 독자는 주로 95%가 여성이고 30-40대가 64%를 차지하는 문화적 집단이다. 웹소설 독자들은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연애의 최종 목표가 결혼이라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으로서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지닌 사람들로 분석된다.

덧글 분석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의해 형성된 팬덤이 웹소설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웹소설 독자는 작가를 '쫓아다니며' 작품을 읽는 이른바 '유목 읽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기존의 것을 고집하고 고수하며, 특정 대상에 열광하고 있다는 점은 웹소설 문화 현상의 속성이 컬트적임을 확인해 준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역으로 추적하면 로맨스 웹소설은 장르 소설적이며, 컬트적 속성이 강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현대에 문학과 비문학, 본격소설과 대중소설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적 매체들은 웹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고려 중이다[10]. 웹소설은 웹툰에 이어 한국 콘텐츠의 보고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장르소설적이며 컬트적 속성이 강한 웹소설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창출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장르와 플랫폼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로맨스를 고집하며 로맨스가 창출하는 이념을

고수하는 독자들이 있는 한,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웹소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의 사전 제작 후 일괄 업로드를 수행하는 방식, 완성본 공모전 개최 등이 작품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경우든 독자들의 미의식 변화가 그것을 선도하리라고 본다. 웹소설이 미래 콘텐츠의 보고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 References

- [1] S. H. Choi, How to do Storytelling, Moonji Publishing Co., Ltd., 2015, p.27.
- [2] K. A. Kim, Transformation into 'Showing' Novels, the Meaning of Web Fiction Culture Phenomen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no.4, 2017, pp. 1367-1388, Available From: <https://www.kci.or.kr> (accessed Jun. 20, 2021) DOI : <https://doi.org/10.22143/HSS21.8.4.71>
- [3] A. Negri & M. Hardt, Multitude, English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Penguin Press,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Sejong Books, 2008, pp.139-144
- [4]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 (accessed Jun. 20, 2021)
- [5] K. A. Kim,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Ideology on the Romance Web fiction, The Journal of Literary Theory vol.,no.62, 2015, pp. 63-94, Available From:<https://www.kci.or.kr> (accessed Jun. 20, 2021) UCI : G704-000812.2015..62.002
- [6] A. A. Berger, Media Analysis Techniques, English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SAGE Publication Inc.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Communication Books, 2015, pp.205-206
- [7] H. P. Abbot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First published 2002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by Moonji Publishing Co., Ltd. 2010, pp.463
- [8] K. A. Kim & J. H. Ku,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 of Love using Text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no.2, 2017, pp. 285-294, Available From: <https://www.kci.or.kr> (accessed Jun. 20, 2021)
- [9] K. A. Kim, A Study on the Conflict Structure of Romance Web Novels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Production and Acceptance,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49, 2020, pp. 319-347, Available From:<https://www.kci.or.kr> (accessed Jun. 20, 2021)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2.285>
- [10] K. A. Kim, Web Fiction and The New Platform of

writing, Journal of Literature Today vol.26, Sol Publishing Co., Ltd., 2018, pp.29-39

김 경 애(Kyung-Ae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국어교육, 문학 및 문화 관련 융합, 리터러시 교육